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연 2%대 하락

‘변동금리>고정금리’ 역전현상 지속 연동 변동형 금리 최고 4%대 후반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진 역전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이 전부 연 2%대로 내려왔다.

전날 기준으로 신한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83~3.84%다.

국민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8~3.98%, 우리은행은 2.68~3.68%다.

하나은행은 2.806~3.906%, 농협은행은 2.47~3.88% 금리를 제공해 5대 주요 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가 최고 4%를 넘지 않는다.

반면 이들 은행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4%대 후반까지 올라간다.

신한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3.40~4.65%다.

국민은행은 3.37~4.87%, 우리은행은 3.40~4.40%로 3~4%대에 걸쳐 있다. 농협은행만 2.98~4.49%로 하단이 2%대다.

금융채 6개월물음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은 변동금리를 2.882~3.982%로 유지했다.

주요 은행들은 은행연합회가 전날 5월 잔액 기준 코픽스를 2.00%로 4월보다 0.01%포인트 낮추자 이와 연동한 주담대 금리도 0.01%포인트씩 낮췄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 4월 4.9% 턱 밑까지 올랐다가 지난달과 이달 소폭 하락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여전히 변동금리 수준이 고정금리보다 현저히 높다.

통상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다. 고정금리로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더는 대신에 적용 금리가 높은 것이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현상이 반년가량 이어지고 있다.

고정금리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데는 이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중금리가 하락한 원인이 있다.

작년 6월 2.6%대였던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는 작년 말 2.0%대로 내려간 데 이어 이달 1.6%대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금리 인상을 이끌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속도 조절에 나선 데다 최근에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내비치면

시중금리가 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금리 역전현상이 이어지자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처음부터 고정금리를 택한 사람도 많아졌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올해 4월 가계 신규대출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43.4%였다. 약 1년 전인 작년 5월 22.2%와 비교해 두 배에 가깝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려는 고객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출을 한 번 받으면 장기로 상환하는 만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잔액기준 코픽스가 18개월 연속 상승세를 끝내고 두 달 연속 하락하는 것을 보면 변동금리 수준이 다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보통 고정금리가 더 높은 것을 고려해 은행들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지 않지만, 고정에서 변동금리로 바꿀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서미애 기자



과학기술영향평가 참여자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셜로봇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는 ‘기술영향 평가 시민포럼’ 참여자를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셜로봇은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이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생활을 돕는데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모으지만, 사생활 침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소셜로봇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평가는 전문가 집단인 ‘기술영향 평가위원회’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을 통해 진행된다.

11번가 경력 개발자 대규모 공채

전자상거래 업체 11번가는 창사 후 첫 대규모 경력 개발자 공채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100여 명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빅데이터(머신러닝), 검색(추천·광고), 앱 개발(iOS), 백엔드(Back-end) 개발, 프론트 엔드(Front-end) 개발 등 5개 분야에 걸쳐 개발자를 모집한 뒤 연말까지 수시로 경력 개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1번가 채용 홈페이지를 비롯해 11번가 채용 페이스북, 링크드인, 잡코리아, 사람인, 로켓펀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서는 오는 30일까지 11번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토스, 아파트 관리서비스 출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이지스엔터프라이즈의 아파트 관리비 서비스 아파트아이와 제휴해 아파트 관리비 조회·납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스 사용자 중 아파트아이 회원은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비회원 토스에서 아파트 정보 인증을 받고 아파트아이 회원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정보 인증에 필요한 납부자 번호는 관리비 고지서나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이 완료되면 추가 로그인 없이 매일 아파트 관리비를 조회할 수 있고, 납부 마감 이틀 전까지 토스머니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현재와 전월 간 관리비 비교와 동일 면적 가구평균 아파트 관리비 비교도 가능하다.

국세청, 장려금 현장인원 374명 충원

‘빅데이터센터’ 신설

민원 서비스 개선과 지능적 탈세 대응을 위해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가 신설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수혜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현장인력이 374명 충원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인력 13명을 확충한다.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이 정규기구로 바뀌고 이후 조직을 보강해 빅데이터센터가 된다.

이 센터는 전문인력을 확충해 지능정보기술을 세정에 활용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빅데이터센터는 지능적 탈세와 체납 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대상이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374명을 충원한다.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돼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서미애 기자



삼성전자 ‘QLED 8K 사이니지’ 글로벌 출시

삼성전자는 18일 저해상도의 광고 영상을 8K 수준 고화질로 자동 변환하고 재생해주는 ‘QLED 8K 사이니지’도 글로벌 출시한다. ‘QLED 8K 사이니지’를 활용하게 되면 광고주는 고화질 광고에 드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8K 수준의 고화질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 /삼성전자 제공

“국내 기업, 미래 준비에 ‘삼중고’ 겪는다”

상의 ‘기업 미래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

국내 기업들이 샌드위치 현상 심화, 신기술 활용 애로, 미래 수익원 부재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8일 국내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우리 기업의 미래준비 실태 조사’ 결과

과 경쟁력이 비슷하거나 뒤처진다고 답했다. 이는 2010년 같은 응답을 한 비율(10.4%)의 4배 수준이다.

신흥국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그 격차가 ‘3년 이내’(31.6%)라는 응답이 ‘5년 이내’(18.5%)와 ‘5년 이상’(8.6%)을 합한 응답(27.1%)보다 많았다.

반대로 선진국보다 뒤처진다는 응답은 전체의 61.2%에 달해 10년 전(41.3%)보다 20%포인트 높았다.

4차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8.0%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적극 활용 중이라는 응답은 6.0%에 불과했다.

정부의 신기술 활용 지원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 규제완화(62.9%) ▲ 인력양성(62.7%) ▲ 연구개발(R&D)지원(59.4%) ▲ 벤처·창업지원(50.6%) 순으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 답했다.

미래 수익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66.9%가 신사업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사업을 확보했다고 답한 33.1%의 기업 가운데서도 아직은 ‘추진 중’이라는 기업이 72.2%였다.

수익원 발굴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시장 형성 불투명’(41.0%)을 꼽았고, ‘자금 부족’(21.7%), ‘기술력 부족’(17.3%), ‘규제 장벽’(16.3%)이 뒤를 이었다.

공기청정기 전문 대표기업 DK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는 물론, 탈취까지 환경에 맞춰 진화한다



mini air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플라즈마 더블케어로 한번 더!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형, 중형, 대형 공기청정기 제조 및 A/S | 문의 1544-1154 | www.e-dk.co.kr